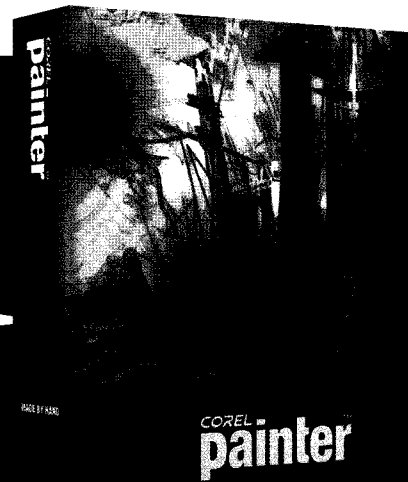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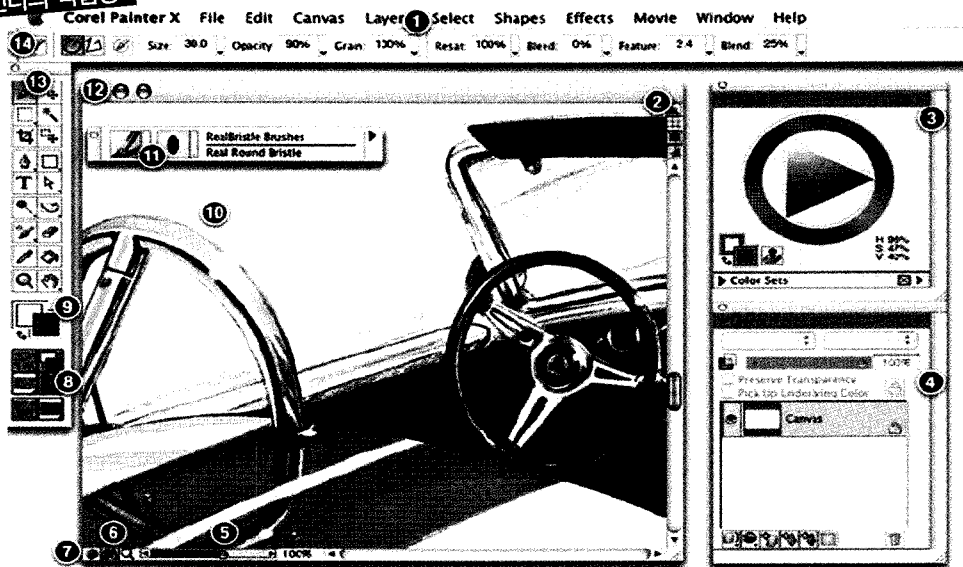


# Painter로 구현하는 디지털 아트



## 페인터의 작업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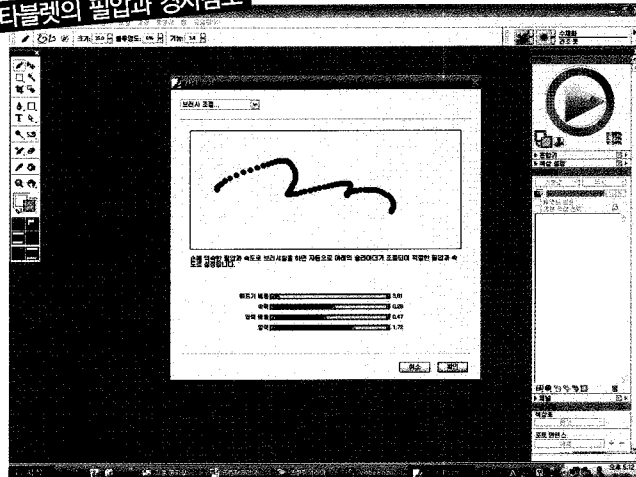


- |                       |                        |                        |
|-----------------------|------------------------|------------------------|
| 1. Menu bar           | 6. Navigation icon     | 11. Brush Selector bar |
| 2. Tracing Paper icon | 7. Drawing Mode icon   | 12. Document title bar |
| 3. Colors palette     | 8. Selectors           | 13. Toolbox            |
| 4. Layers palette     | 9. Color Selection box | 14. Property bar       |
| 5. Scale slider       | 10. Canvas             |                        |

## 다양한 브러시



## 타블렛의 필압과 경사감도





좌측의 원본 이미지가 페인터를 통해 유화로 변형되었다

##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유화제작의 예

### Painter의 작업 창

어도비의 포토샵은 전문적인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중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Natural 페인팅 분야에서는 코렐 페인터가 독보적인 소프트웨어이다.

코렐 페인터의 인터페이스는 도구 톨 바, 브러시 선택 톨 바, 색상 선택창 등이 자연스럽게 분류되어 있고 초기 Welcome Box에서는 최고의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작업에 관계된 자료, 마법사, 참고 사이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WelcomeBox의 작품은 시작할 때마다 변경되며, 도움말 메뉴에서 열기와 닫기를 설정할 수 있다.

다플트 브러시, 레이어, 색상 선택창은 합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 캔버스

페인터에서는 페인팅을 할 때에 캔버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텍스처 효과를 가지게 된다. 즉 캔버스의 재질에 따라 페인팅 효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페인터는 물감과 캔버스가 상호 작용을 한다. 즉 물감의 종류

나 붓에 따라 종이에 스며들고 마르고 젖고 하는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된다. 또한 캔버스 설정에 다양하게 세밀화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텍스처 효과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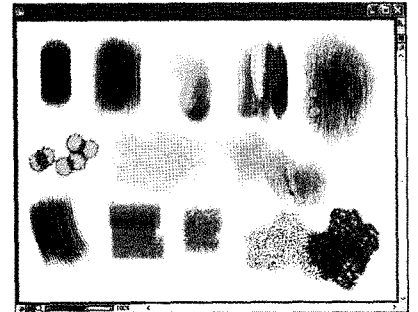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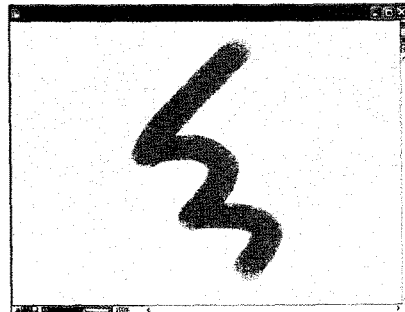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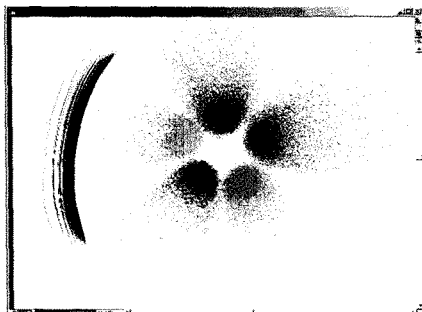
페인터는 23가지 기본 캔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CD에는 더 많은 캔버스를 확장해 쓸 수 있도록 수백 개의 캔버스의 템플릿을 훨씬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각 캔버스는 강도, 깊이, 방향, 조명, 색채 등 구체적인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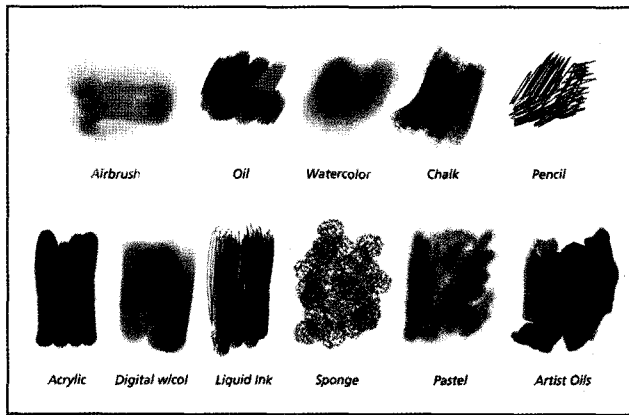
### 캔버스와 브러시

캔버스 유형에서 작업자가 가장 적합한 캔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페인터에서는 다양한 캔버스와 함께 36가지의 기본 브러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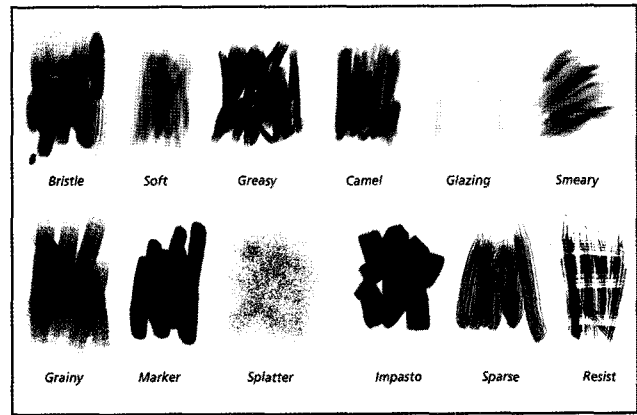
페인팅할 때 사용하는 수채화, 유화, 파스텔화, 크레파스, 색연필, 분필, 에어브러시 등 페인팅용 브러시와 함께 클론, 특수 효과, 사진 효과 등 특수효과 브러시 등도 있다.

각 기본 브러시 내부에는 많은 변화속성(Variants)이 있는데, 이 속성들을 포함하면 800개 이상의 브러시를 사용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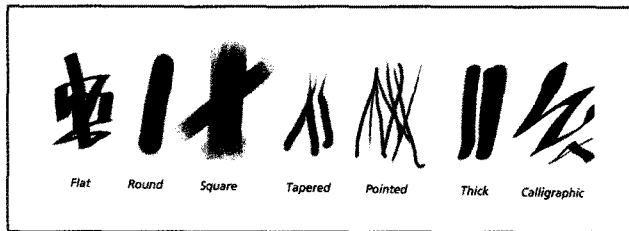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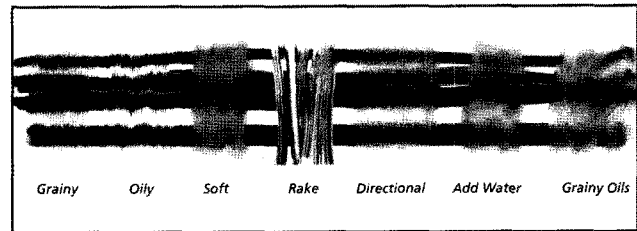
Brush의 명칭으로 분류



Texture로 분류



Brush의 형태로 분류



물감의 섞임으로 분류

과 같다. 게다가 작업자의 개성에 따라 손에 익숙한 브러시를 만들어 쓸 수도 있다.

이처럼 페인터에는 다양한 브러시 제작도구가 제공되고 있으며, 각 브러시의 세부 속성을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브러시로 등록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제공되는 브러시로 인해 오히려 처음 페인터를 시작하는 사용자들은 어려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훌륭한 미술가나 페인터 마스터들이라고 해도 그 많은 브러시를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잘 맞는 몇 가지만을 사용한다. 자신의

손에 맞는 브러시를 찾아 가는 과정이 페인터에 익숙해지는 길이기도 하다. 위의 그림은 혼란스러운 페인터의 브러시를 명칭과 특징별로 분류했는데, 주의 깊게 보면 페인터 브러시의 특징을 나름대로 잘 분류하여 쓸 수 있다.

**타블렛의 필압과 경사 감도**

소프트웨어와 타블렛의 융합은 페인팅의 사실감에 큰 영향을 준다. 페인터는 작업자의 붓 습관과 컴퓨터의 성능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타블렛 펜의 감도 설정을 자동으로 지원한다. 때문에



포토샵의 예술효과

원본

페인터의 유화

따로 설정할 필요없이 붓 가는 대로 그려주면 자동으로 설정된다.

### 레이어

페인터의 레이어는 캔버스 레이어, 일반 레이어, 수채화용 레이어가 있으며 레이어 합성과 depth 옵션이 있다.

수채화는 수용성, 유동성, 침투성 등이 있어서 실제 그림 중에서 수채화의 마른 정도와 습도 정도에 따라 브러시 효과도 달리 표현된다. 페인터는 전문적으로 수채화용 레이어가 제공되어 레이어의 마른 정도와 습도를 반영해 실제 수채화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

### 예술효과

페인터에는 일련의 특수한 페인팅 도구가 있어서 효과를 쉽고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다. 사진을 클론 기능으로 페인팅하면 다양한 형태의 페인팅 효과를 클론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 픽셀 세부에 일일이 붓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업 후 확대를 하면 세부에 붓질 자국이 보인다.

하지만 포토샵으로 사진을 수채화 효과로 만들면 부드럽지 못하고 질감이 모자란다. 포토샵으로 구현한 수채화를 확대해 보면 픽셀이 깨진 모습, 뭉개진 모습 등이 보이는데, 이는 비트맵을 블러시켜 구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작업을 할수록 이미지 품질이 떨어진다.

반면에 페인터는 작업이 진행될수록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150 dpi 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는 이미지 편집프로그램과 전문 회화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 Auto Painting

페인터는 회화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컴퓨터 화면상에 그대로 구현한다. 특히 사진을 전제로 하여 디지털 아트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을 스케치로 볼 수 있다. 스케치뿐 아니라 색상, 명도, 채도 등도 모두 따라 오게 된다. 이처럼 사진을 디지털아트를 구현하게 한 것이 Auto Painting 기능으로 상업적 사용을 위한 작업 시간이 10~30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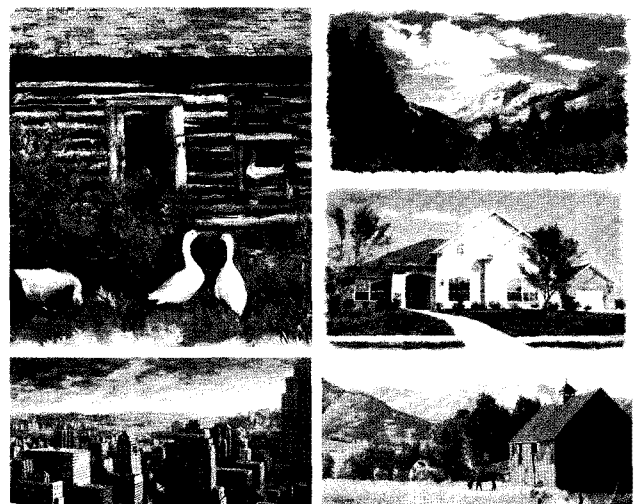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인물



게임배경



풍경

